

경쾌한 드라이빙, 엔진 밸런스 굿... “역시 해치백의 정수”



폭스바겐 8세대 골프

정제된 라인 등 깔끔한 외관 매력
가속성·안정감·민첩성 돋보여
트래블 어시스트 등 첨단기능 탑재
디젤 엔진... 복합연비 17.8km/L

‘해치백의 교과서’ 골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매력으로 6년 만에 돌아왔다.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8세대 골프는 주행의 즐거움은 물론 뛰어난 경제성,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2022 폭스바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 in 부산’서 신형 골프를 경험했다. 시승은 백스코를 출발해 경남 밀양시로 이어지는 약 100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도심 주행과 고속주행, 와인딩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골프의 퍼포먼스를 경험했다.

우선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폭스바겐 신형 8세대 골프 외관.

정제된 라인, 완벽한 비율과 역동적인 실루엣으로 골프만의 디자인 언어를 정립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골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친숙함이 느껴졌다. 실내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미해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내부에는 10.25인치 디지털 콕핏 프로와 10인치 MIB3 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으로 완성되는 ‘이노비전 콕핏’을 통해 개방감과 직관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8세대 골프는 다른 해치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첨단 사양이 탑재됐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켜자 미세한 디젤 소리가 들리지만 크지 않았다. 도심에서 골프는 독일 브랜드의 딱딱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스티어링이나 패달의 반응에 부드럽게 움직였다. 몸놀림은 여전히 가볍고 경쾌하지만 노면의 진동은 최소화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줬다.

고속도로에서 가속패달에 힘을 주자 빠르게 반응했다. 안정감과 넉넉한 출력 폭폭한 기어비까지 모듬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신형 8세대 골프는 차세대 EA288 evo 2.0 TDI 엔진과 7단 DS



폭스바겐 신형 8세대 골프 내부.

G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6.7kg.m를 발휘한다. 다만 경사구간과 급가속 시 반 템포 늦은 느낌이 든다. 이같은 아쉬움은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둔 ‘골프GTI’ 모델이 완벽하게 달래줄 것으로 보인다.

골프는 밀양 얼음골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통과하는 와인딩 구간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와인딩 구간에 접어들자 몸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의 급격한 커브 길이가 이어지면서 ‘차가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민첩하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갔다.

8세대 골프에는 다른 해치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첨단 기능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도 탑재됐다.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은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활성화하면 앞 차량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옆 차로에서 달리는 차량과의 거리도 완벽하게 조절했다. 또 자사 컴팩트 모델 최초로 ‘윈드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편의성도 높였다.

8세대 골프는 디젤 엔진을 품고 있지만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잡아냈다. 2.0 TDI 엔진은 트윈도징 시스템으로 저온 배기가스와 고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한다. 기존 대비 80% 정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동급 최고 수준인 복합연비 17.8km/L의 효율성도 갖췄다.

8세대 골프의 가격은 2.0 TDI 프리미엄 3625만4000원, 2.0 TDI 프레스티지 3782만5000원이다. 1월 프로모션 혜택 적용 시 3300만원대(프리미엄 기준)부터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IBM과 ‘양자컴퓨팅’ 개발 박차

‘IBM 퀀텀 네트워크’ 합류 애플리케이션 개발 집중 교육·포럼 참여 등 역량 강화

LG전자가 IBM 양자컴퓨팅에 힘을 더한다.

LG전자는 IBM 퀀텀 네트워크에 회원사로 합류한다고 10일 밝혔다.

IBM 퀀텀 네트워크는 IBM이 양자컴퓨팅 발전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 학술기관 등 170여 단체와 함께 결성한 협력체다.

LG전자는 IBM과의 협력을 통해 IBM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애플리

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IBM에 양자컴퓨팅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 받고 컨퍼런스와 포럼 등에 참여하며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IBM 퀀텀 네트워크 회원사들과 같이 IBM의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양자소프트웨어 개발도구인 퀴스킷 등도 이용 가능하다.

양자컴퓨터는 양자 특성을 이용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린 시스템이다. 역사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IoT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제이 감베타 IBM 펠로우 겸 퀀텀컴

퓨팅 부문 부사장은 “양자컴퓨팅을 활용해 커넥티드 카나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데 LG전자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양자컴퓨팅 기술을 미래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국조선해양

1조3300억 규모 선박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난주에 이어 선박 9척, 1조3300억원 상당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및 중남미 소재 선사 등 3곳과 1만6000TEU급 이중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4척, 17만4000입방미터(㎥)급 대형 LNG운반선 1척, 25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등 총 9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5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길이 297m, 너비 46.4m, 높이 26.5m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5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로템 국내 첫 다목적 무인차량 軍에 납품

감시·정찰 등 시범운용 성공적 마쳐
현대로템이 한국 최초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군에 최종 납품했다.

현대로템은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2톤급 원격·무인차량인 다목적 무인차량 2대의 시범운용을 마치고 군에 납품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 11월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수주해 성능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7월 차량을 군에 전달했다. 이후 6개월간 군과 함께 GOP, DMZ 등 야전에서의 시범운용을 통해 철저히 차량의 성능검증을 마쳤다.

특히 이번에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 최초의 시범운용을 마친 무인차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4차 산업기술과 무인전투장비 기반의 미래전장환경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인 만큼 군은 이번 납품을 통해 신뢰성 있는 첨단 무인 무기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감시·정찰 임무 및 근접전투, 물자이동 임무 등 성공적인 군 시범운용을 통해 다목적 무인차량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며 “다목적 무인차량 외 전차, 장갑차 등 기존 기동전투체계의 원격 무인화 기술도 개발해 전투원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산 무인체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미래 시장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국방개혁 2.0과 전투 플랫폼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등을 발표하고 무인체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 ‘갤럭시 S22’, 내달 베일 벗는다

갤럭시 S22가 2월 초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8일 갤럭시S22 언팩을 열기로 확정했다. 9일에 예약판매, 24일 일반 판매 일정에 구체화했다.

언팩 초대장은 1월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온라인 개최가 유력하다.

대신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예정인 MWC2022에서 갤럭시 S22를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티스터 등은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등 3가지 모델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S펜을 수납하는 공간을 추가해 노트 시리즈를 통합하는 첫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김재용 기자



임인영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 전무(왼쪽부터),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장세영 두산중공업 전략혁신부문 상무, 심교현 에릭슨엘지 상무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5G 기반 차세대 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 5G 기반 디지털 사업 영토 확장

강원TP·에릭슨엘지 등과 업무협약
두산중공업이 공공기관, 글로벌 IT 기업들과 손잡고 기존 발전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 사업을 확대한다.

두산중공업은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 에릭슨엘지, (주)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하 DDI)과 ‘5G 기반 차세대 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운송·제조 관련 디지털 관계센터 등 강원도

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원TP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관계센터 구축 및 실증을 위한 스마트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두산중공업은 디지털 솔루션, DDI는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역량, 에릭슨엘지는 5G 기술 등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